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은혜의 교리

DOCTRINES OF GRACE

칼빈주의 5대 교리 공부교재

최용진 편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엡 2:8



은혜의 교리

DOCTRINES OF GRACE · 칼빈주의 5대 교리 공부교재

저자 최용진

발행처 갓플리징북스 (GOD-PLEASING BOOKS)

발행인 최용진

초판 발행 2009년 12월 24일

개정판 발행 2026년 7월 30일 · v1.1

편집 · 디자인 갓플리징북스

ISBN 979-11-91518-55-9

© 2009, 2026 최용진. All rights reserved.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저작권자의 서면 허락 없이 무단
전제 · 복제 · 배포할 수 없습니다. 성경과 외부 저작물의 저작권은 각 저작자와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별도 표시가 없는 성경 인용은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 1998 대한성서공회)을
사용했습니다.

참고 자료 및 인용 출처

존 맥아더

John MacArthur, “The Doctrines of Grace,” Grace to You, 2004–2005. 본문의 전체 구성과 교리 설명은 이 열 편의 설교 시리즈를 주된 자료로 삼아 성경공부용으로 요약·편집했습니다. 본문에서 (존 맥아더)로 표시한 짧은 영어 문구는 이 설교 시리즈의 표현을 인용하거나 그 핵심을 간결하게 옮긴 것입니다.
www.gty.org/sermons/series/280/the-doctrines-of-grace

존 파이퍼

John Piper, “TULIP,” Desiring God 세미나, 2008. 일부 설명과 부록의 비교표를 구성할 때 참고했습니다.
www.desiringgod.org/series/tulip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총회표준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새번역)』. 본문에는 3장 5항과 17장 1–3항을 인용했습니다.

찰스 H. 스펔전

Charles H. Spurgeon, “Election,” New Park Street Pulpit, Vol. 1, Nos. 41–42, 1855년 9월 2일. 2과 끝부분의 인용문은 이 설교에서 번역했습니다.
www.spurgeon.org/sermons/election

밀러드 J. 에릭슨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829쪽. 4과의 한 문장은 John Piper의 TULIP 세미나 교재 20쪽에서 재인용했습니다.

웹 자료 최종 확인: 2026년 7월 28일

머리말

이 교재는 제가 존 맥아더(John MacArthur)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 그 설교를 통해 얻은 귀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교리’를 싫어합니다. ‘교리는 어렵고 복잡하며 비실용적이다’라는 핑계를 대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배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6-19

이러한 기도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2009. 12. 24 최용진

개정판을 내면서

이 교재를 처음 만든 것은 2009년의 일이다. 당시 존 맥아더 목사님의 ‘은혜의 교리’ 설교와 존 파이퍼 목사님의 ‘TULIP’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할 수 없어 성경공부 교재로 정리한 것이 이 책의 시작이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개혁주의 신앙을 더 배우며 그 풍성한 유익을 누렸다. 개혁주의는 내게 단순한 신학 체계나 논쟁을 위한 주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심과 은혜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는 창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아 갈수록 내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죄와 악함도 더욱 분명히 보게 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더욱 굳게 붙들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 가는 것은 내 삶에 주어진 가장 큰 복이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나 자신을 낮추고,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한다. 또한 고난 중에는 위로를, 사역 중에는 인내를,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준다. 내가 받은 이 복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이 책을 처음 만들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번 개정은 이 교재를 태국어로 번역하여 태국의 교회와 성도들과 나누기 위한 준비로 시작되었다. 처음 교재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설명을 더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다듬었다.

이 책을 읽는 이들이 사람의 주장이나 교리의 이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교리를 배우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또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하는 힘이 되기를 기도한다.

끝으로 태국 우돈타니에서 나와 함께 삶과 사역의 수고를 감당해 온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낯선 땅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과 사역의 무게를 함께 견디며, 말없이 양보하고 기다리고 기도해 준 가족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책을 다시 다듬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작은 교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는 도구로 쓰이기를 바란다. 이 책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기도한다.

2026년 7월 28일
태국 우돈타니에서
최용진

일러두기 말씀

이 교재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제기한 다섯 가지 주장에 대해 도르트 신경이 정리한 정통 개혁주의의 가르침, 곧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다룹니다. 맥아더 목사님은 2004년에 이 교리를 기초로 “은혜의 교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열 차례에 걸쳐 전했습니다. 이 교재는 그 설교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며 성경공부용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이 교재를 편집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TULIP” 세미나도 참고했습니다. 자세한 출처는 판권 뒤의 ‘참고 자료 및 인용 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의 “은혜의 교리” 설교 자료는 Grace to You(www.gty.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성도의 보존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8
2.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20
3. 전적 무능력 (Absolute Inability)	31
4. 실제적 속죄 (Actual Atonement)	44
5. 유효적 부르심 (Effectual Calling)	57
맺음말	66
◆ 부록 :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5대 교리 비교	70

교재의 구성

▶ 교리 요약

■ 대표성구

⇒ 교리의 근거

문제 제기/의문

⇒ 해답

■ 반대자들이 내세우는 성구

■ 반대자들의 주장

■ 바른 해석

결론

♡ 교리에서 얻는 깨달음/감사

(묵상할 말씀, 감동적인 글)

■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1. 성도의 보존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자를 끝까지 믿음 안에 보존하시며, 참된 신자는 그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반드시 완성된다. “Once saved, always saved.” (존 맥아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그의 영에 의해 효력 있게 부르시고 성화시키신 자들은 완전히 그리고 궁극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부터 떨어져나갈 수가 없다. 이들은 은혜의 상태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다가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1항, 예장합동 새번역)

■ 요 3:16,1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요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has passed out of death into life)』

요 6:37-40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 10:27-29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롬 8:29-30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근거⇒ 참된 신자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끝까지 믿음 안에 보존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이 끝까지 지속되도록 지키신다.

“이와 같은 성도들의 견인은 성도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고 불변하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에 근거한다. 성도의 견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기도의 효력, 성령과 하나님의 씨가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것, 그리고 은혜 언약의 성질에 근거한다. 이 모든 근거들을 볼 때 견인은 확실하며 오류가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2항, 예장합동 새번역)

◆ 의문 1. “그렇다면 신자는 믿음의 삶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가? 성경에는 배교와 타락을 경고하는 말씀도 있지 않은가? (히 6:4-8, 10:26; 벰후 2:20-21)”

⇒ 신자도 그 안에 남아 있는 죄 때문에 심각한 죄에 빠지거나 믿음의 삶에서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자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떨어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으나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들의 배교를 드러내는 동시에, 참된 신자들을 깨어 있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단과 세상의 시험들, 그들 안에 널리 퍼진 채 남아있는 부패, 그리고 자신들을 보존하는 수단들을 무시하는 태도 등 때문에 심각한 죄에 빠져 들며 한동안 그 죄 안에 머무른다. 이와 같은 성도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불쾌함을 일으키며, 그의 성령을 슬프게 한다. 그들은 은혜의 위로를 어느 정도 박탈당하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양심은 부상당한다. 마침내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괴롭히며, 자신들에게 일시적인 심판을 가져온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3항, 예장합동 새번역)

◆ 의문 2.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거나 한때 영접했다고 말한 사람은, 이후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뜻인가?”

⇒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점이다.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나 일시적인 의지의 결단만을 뜻하지 않는다. 한 번의 영접 기도나 결단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일시적인 고백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는 믿음이며,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자를 그 믿음 안에 보존하신다. 예수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 24:13)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은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키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 의문 3. “성도의 보존 교리는 결국 신자가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든 뜻인가? 그렇다면 신자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야 할 책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성도의 보존 교리는 신자가 죄를 지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든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자를 믿음 안에 보존하실 뿐 아니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개와 순종으로 돌이키신다. 신자가 일시적으로 심각한 죄에 빠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징계를 통해 그를 다시 돌이키신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회개와 순종과 성화의 열매로 나타난다. 구원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엡 2:8-9),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키신다. “Saving faith is an enduring faith.” (존 맥아더)

■ 반대자들이 내세우는 성구

요 8: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 15: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 24: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고, 막 13:13)

행 13:43 『...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빌 2: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전 15:2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롬 2: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롬 11: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골 1:22-23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히 3:6,14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므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딤후 2:12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 반대자들의 주장

이 모든 성경 구절은 신자에게 믿음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견디라고 경고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신자도 믿음에서 떠나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자가 믿음 안에 거하며 끝까지 견디야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찍히는

바” (롬 11:22)가 되는 것이 아닌가?

■ 바른 해석

성경은 구원을 일시적인 상태나 인간이 시작하고 유지하는 성취로 가르치지 않는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 동시에 성경은 신자에게 믿음 안에 거하고 끝까지 견디라고 명령하고 경고한다. 이 두 가르침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뿐 아니라 명령과 경고의 말씀도 사용하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도록 보존하신다.

그러므로 위 성구들은 신자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하는 믿음이 끝까지 지속되는 믿음임을 보여 준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견디며(벧전 1:5), 그 견딤은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존의 열매이다.

■ 반대자들이 내세우는 성구

히 12:1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갈 5:19-21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고전 6:9-10, 엡 5:3-5, 계 21:8

요일 2:3-4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참고, 요 4:21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요일 3:6-10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일 3:14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참고, 요일 4:20)

■ 반대자들의 주장

결국 신자가 참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불의를 버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최종 구원은 하나님의 보존하심만이 아니라 신자의 순종과 성화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 바른 해석

성경은 순종과 성화를 구원의 공로나 독립적인 조건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순종과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필연적인 열매이며, 참되고 살아 있는 믿음의 증거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신자 안에 거룩한 소원과 능력을 일으키시며, 신자는 그 은혜에 힘입어 죄를 죽이고 의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빌 2:12-13; 살전 5:23-24).

그러므로 성화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간이 스스로 완성하는 일이 아니며, 그렇다고 신자의 책임과 노력을 배제하는 일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서 역사하시고,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순종한다. 거룩한 삶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열매이다. “He works in us and with us, not against us or without us.” (존 오웬)

결론 1.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에게 주신 영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이 구원의 확실성은 신자의 감정이나 의지에 있지 않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 다만 구원이 객관적으로 확실하다는 사실과 신자가 언제나 동일한 정도의 구원 확신을 느낀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 **벧전 1:3-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참고, 벧전 5:10)

롬 8:38-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론2. 성도가 끝까지 믿음 안에 보존되는 근거 가운데 하나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신다는 사실이다.

■ 요 17:9, 11, 15, 20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참고, 눅 22:31-32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히 7: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결론3.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시고 친히 완성하시는 일이다.

■ 빌 1: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살전 5:23-24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고전 1:8-9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렘 32:40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딤후 4: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론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과 순종의 열매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증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선택을 확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열매를 통해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한다는 뜻이다.

■ 빌 2:12-13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for it is God who is at work in you, both to will and to work for His good pleasure). 』
(참고, 히 13:20-21)

벧후 1: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딤펴전 6: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딤펴후 4:7-8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 구원의 최종 성취가 인간의 불완전한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면 누구도 구원의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인가!

♡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주님께서 신자들을 위해 중보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구원의 확신을 주는가!

♡ 신자를 끝까지 지키시며 산 소망 가운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 1:24-25

■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2.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과 은혜에 따라 구원받을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목적과 자신의 의지에 근거한 은밀한 계획과 선한 즐거움에 따라서 생명을 얻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이 선택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이 선택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선행, 견인, 이것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미리 아심이 없이 이 선택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아래 있는 어떤 다른 것을 자신의 움직이는 조건이나 원인으로 삼지 않으신 상태에서 이 선택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오직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5항, 예장합동 새번역)

■ 요 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

엡 1:4-5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 17:9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행 13: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벤전 1: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살후 2:13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근거⇒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과 은혜에 따라 죄인에게 공휼을 베푸시며, 그 구원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 출 33:1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휼히 여길 자에게 공휼을 베푸느니라』

◆ 의문 1. “그렇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억울한 것이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다른 사람은 택하지 않으시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은가?”

⇒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으며 누구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이며, 그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유로운 은혜와 공휼이다. 따라서 선택은 어떤 사람에게 마땅히 받을 구원을 빼앗는 불의가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공휼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신의 죄와 불신앙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신다(요 3:19).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적인 잣대로 재단하기보다 그분의 공의와 긍휼 앞에 겸손해야 한다.

■ 롬 9:19-23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 의문 2. “그렇다면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아 심판받는 것을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가?”

⇒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책임은 우리의 이성으로 완전히 헤아리기 어려운 신비이지만, 서로 모순되는 진리는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권적으로 이루신다는 사실과 사람이 자신의 죄와 불신앙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모두 분명히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에게 불신앙을 강요하거나 인간의 의지를 억압한다는 뜻이 아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 된 본성을 따라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므로 그 불신앙에 대해 책임을 진다.

반면에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온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며, 믿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다.

■ 신 29:29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고전 15:10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 의문 3.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가(벧후 3:9; 딤후 2:4)?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는 교리와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의 초청(요 7:37)을 어떻게 함께 이해해야 하는가?”

⇒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진실하게 명령하신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며,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사람은 누구도 거절당하지 않는다.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시고, 성령의 유효적인 부르심을 통해 그들을 실제로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하신다고 가르친다.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복음의 외적 부르심은 진실한 초청이며,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효적 부르심은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이다.

디모테전서 2장 4절의 ‘모든 사람’은 그 문맥에서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신분과 민족을 초월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오래 참으시며 그들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과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의 초청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작정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해야 한다.

■ 반대자들의 주장

팀 라헤(Tim LaHaye): “이러한 교리는 신성모독에 위협할 정도로 가깝다.”

데이브 헌트(Dave Hunt): “이 교리는 많은 사람을 마치 괴물에게서 도망치듯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었다.”

■ 바른 해석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선하고 옳기 때문에 행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선하고 옳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임의적으로 결정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은 언제나 그분의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신 본성과 일치한다. 하나님보다 높은 선의 기준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과 의의 완전한 기준이시다.

선택과 구원은 인간의 공로에 따라 보상을 분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에 관한 문제이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구원을 빚지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이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값없이 베푸시는 긍휼이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자신의 뜻에 따라 개인과 민족을 택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인간적인 공로와 자격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공의와 긍휼 앞에 겸손해야

한다.

■ 반대자들이 내세우는 성구

벤전 1: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롬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 반대자들의 주장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미리 아신 데 근거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믿음에 앞서 이루어진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롭게 내릴 선택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승인하신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책임을 더 잘 설명하며, 선택 교리가 하나님을 가혹한 분으로 오해하게 하는 문제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바른 해석

죄로 인해 영적으로 무능력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으며,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딜 수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장차 스스로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 믿음을 선택의 근거로 삼으셨다고 설명하면, 구원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차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놓이게 된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장래 믿음을 미리 아셨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말한다. 여기서 ‘미리 아심’은 단순히 미래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셨다는 뜻을 넘어,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미리 사랑하시고 언약적인 관계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선택이 인간의 장래 믿음이나 공로에 근거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선택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루어지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순종과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믿음과 순종은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의 열매이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만 완전히 같은 표현은 아니다. 미리 아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아신 것을 강조하고, 미리 정하심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목적지까지 정하신 것을 강조한다.

결론 1.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음을 분명히 가르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 교리를 인간의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이 교리를 믿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모든 생각과 감정에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사용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유한하고 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성품과 계시를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직하게 살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한다.

결론2. ☞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에게서 미리 보신 믿음이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자유로운 은혜에 근거한다.

■ 롬 11:5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엡 1:4-5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출 33:19 『...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롬 9:11,13,14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결론3. ☞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예정과 선택에 따라 자기 백성을 유효하게 부르시고 그리스도께 이끄셔서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

■ 롬 8:29-30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딤후 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요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참고, 마 11:27 『...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참고, 살후 2:13-14)

결론4. ☞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백성이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는 데 있다.

■ 엡 1:4-6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고전 1:26-29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자.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자.

♡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며, 사랑으로 택하신 백성을 돌보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 막 13:20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눅 18:7-8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약 2:5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선택의 교리보다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나는 이 교리를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때때로 그 앞에 엎드리곤 했다.

나는 날개를 펴고 독수리처럼 태양을 향해 날아올랐다. 한동안 내 눈은 흔들리지 않았고 내 날개도 곧게 뻗어 있었다. 그러나 그 빛에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를 구원에 이르도록 택하셨다’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자, 나는 그 광채 속에서 길을 잃었고 그 엄청난 생각 앞에 비틀거렸다.

마침내 아찔한 높이에서 내려온 내 영혼은 엎드리고 깨어진 채 이렇게 말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합니다. 왜 저입니까? 왜 저입니까?’ ”

— 찰스 스펔전, 「선택」, 1855년 9월 2일 설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롬 11:33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램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 62:1

■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3. 전적 무능력 (Absolute Inability)

▶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없이는 스스로 죄에서 돌이켜 복음을 믿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죄인은 자기 안에 영적 죽음에서 스스로 일어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적 타락이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완고함과 반역이 전적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반역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죄이다.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스스로를 고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도 전적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존 파이퍼)

■ 엡 2:1, 5 『(2)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골 2:13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딤후 5:6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엡 4:17-18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롬 5: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고전 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근거 ⇨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묘사한다. 따라서 죄인이 영적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

◆ 의문 1. “불신자 가운데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도 선한 것이 남아 있지 않은가?”

⇒ 전적 무능력은 불신자가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가능한 모든 면에서 가장 악하다는 뜻이 아니다. 타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죄를 억제하시고 양심을 통해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 분별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불신자도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등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외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구원에 이르는 공로나 영적인 선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선은 믿음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불신자의 선행은 사람과 사회에 실제적인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거나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불신자의 모든 선행을 무가치하다고 부정해서도 안 되고,

그 선행이 인간의 영적 무능력을 해결하거나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사회적·도덕적 선과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선을 구분해야 한다.

◆ **의문 2.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아닌가? 인간이 영적으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면 어떻게 복음을 믿을 수 있는가?”**

⇒ 그렇다. 실제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주체는 사람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믿으시는 것이 아니다. 믿는 사람은 자신의 지성과 의지로 그리스도를 알고 의지하며 자발적으로 그분께 나아온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은 타락한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어두워진 지성을 밝히시며, 죄에 매인 의지를 자유롭게 하실 때 사람은 기꺼이 그리스도께 나아와 믿는다.

따라서 믿음은 사람이 실제로 행하는 응답이지만,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고 일으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공로나 기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믿으라고 명령하시며, 택하신 사람에게는 성령의 유효적인 부르심을 통해 그 명령에 믿음으로 응답할 능력과 마음을 주신다.

■ 엡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벧후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빌 1:29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 의문 3.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없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믿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 복음의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진실한 초청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와 수고에 지친 모든 사람에게 자신에게로 오라고 명령하시며,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사람은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인간의 영적 무능력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외부의 힘에 의해 막혀 있다는 뜻이 아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 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무능력은 복음을 믿어야 할 의무나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없애지 않는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시지만, 택하신 사람에게는 복음의 외적 부르심과 함께 성령의 유효적인 부르심을 베푸신다.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며, 기꺼이 그분께 나아오도록 하신다. 따라서 복음의 명령과 인간의 무능력은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명령 자체를 자기 백성을 믿음으로 부르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은혜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주께서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의무를 보여 주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새 마음과 능력을 주신다.

■ 반대자들이 내세우는 성구

대하 30:6, 8 『...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앗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계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 반대자들의 주장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약속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성경에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조건형 약속이 반복해서 나타나며, 복음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그 명령에 응답할 최소한의 능력이 남아 있음을 뜻하지 않는가?

■ 바른 해석

성경의 조건형 명령과 약속은 인간의 의무와 약속된 결과의 관계를 보여주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그 명령을 자기 힘으로 수행할 능력이 남아 있음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사실은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보여 주며, 그 명령을 수행할 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까지

전제하지는 않는다.

은혜 언약에서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공로나 대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수단이다. 죄인은 실제로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구원하는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그러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약속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가르침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역대하 30장 12절은 유다 백성이 명령에 한마음으로 순종한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동시키신 역사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에스겔 36장 25-27절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그들 안에 성령을 두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인간의 독립적인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을 자기 백성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

◆ 참고

대하 30:12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와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겔 36:25-27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 반대자들이 내세우는 성구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행 16: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 반대자들의 주장

인간은 죄로 인해 심각하게 타락했지만, 복음에 응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의 능력과 자유의지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만일 사람에게 믿을 능력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불합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인간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자연적인 능력이 남아 있음을 전제한다는 주장이다.

■ 바른 해석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단지 영적으로 약해진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도 않고 나아갈 수도 없는 상태에 있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사람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독립적인 능력이 남아 있다는 주장은 인간의 영적 죽음과 전적 무능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13절은 그들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밝힌다. 믿음은 사람이 실제로 행하는 응답이지만, 그 믿음과 새 생명의 궁극적인 근원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도 사람이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하는 믿음을 만들어 낼 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다.

거듭남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그 사람은 강제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의지로 기꺼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므로 거듭남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믿음에서 인간의 자발적인 응답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믿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생명과 함께 일으키시는 은혜의 열매이다.

결론 1. 타락한 인간의 본성 전체는 죄의 영향을 받아 부패했으며,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자신을 영적으로 새롭게 할 수 없다.

■ 창 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렘 17: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롬 3:10-18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잠 20:9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렘 13:23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고후 4: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결론2. ☞ 타락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참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며, 죄를 사랑하여 진리를 거부한다. 따라서 인간의 영적 무능력은 단순한 능력의 부족만이 아니라, 죄로 기울어진 의지의 완고함과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포함한다.

■ 롬 1:28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함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롬 8:5-8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고전 2: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마 23: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요 3: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결론3. ☞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일이며, 특히 거듭남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단독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이끌지 않으시면 누구도 스스로 그분께 나아올 수 없다. 그러나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기꺼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요 1: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 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5: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 6:44,65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5]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마 11: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딤후 2:25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딤후 3:3-7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중 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4.  성령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택하신 죄인을 유효하게 부르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된 사람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인다.

유효적 부르심과 거듭남, 회개와 믿음, 칭의는 회심의 과정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완전히 동일한 사건은 아니다. 거듭남은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수단이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따라서 믿음은 거듭남의 원인이나 칭의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은혜의 수단이다.

♡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의 구원을 기뻐하자.

♡ 거듭난 신자 안에도 죄의 부패가 남아 있음을 알고,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죄를 죽이며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전 15:10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롬 11:33-36

■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4. 실제적 속죄 (Actual Atonement)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실제로 속죄를 이루셨다. 그분의 죽음은 구원을 단지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구원을 확실히 성취했다.

■ 마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 10:14-15, 26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my own)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26]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참고, 딤후 2:19 주께서 자기백성을 아심)

벧전 3:18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히 9:15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딤후 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살후 3:2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근거⇒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잠재적인 속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단번에 객관적으로 성취된 실제적인 속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실제로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그들을 위한 구속과 구원의 모든 은혜를 확보하셨다.

다만 십자가에서 속죄가 성취된 것과 그 효력이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유익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택하신 사람에게 역사 속에서 적용되며, 그 사람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사람들을 성령으로 유효하게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성령의 적용 사역은 서로 분리되거나 실패하지 않으며, 성부께서 구원하기로 뜻하신 백성은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적용을 통해 반드시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 속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든 보편구원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의 실제적 속죄 교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원을 단지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백성의 구원을 확실하게 성취하고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면, 그 속죄의 유익도 반드시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는 그들이 믿음 없이 구원받는다든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확보하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부르심과 회개와 믿음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께 나아와 믿는다.

◆ 의문 1.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가르치지 않는가? 그렇다면 실제적 속죄 교리가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런 말씀들과 모순되지 않는가?”

⇒ 모순되지 않는다. 성경의 ‘세상’과 ‘모든 사람’이 언제나 세상의 모든 개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단어들만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개인의 죄값을 동일하게 담당하셨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양과 교회를 위해 죽으시고 그들의 구원을 실제로 이루셨다고 가르친다. 각 성구의 의미는 뒤의 ‘바른 해석’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알미니안주의적 보편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실제로 지불하셨다고 말하면 다음과 같은 모순이 생긴다.

“지옥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로 가득하다.” (존 맥아더)

-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면, 그 죄로 다시 형벌받을 사람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사람이 자기 죄로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고 가르친다.

-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속죄는 사람이 믿을 때에만 효력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속죄가 실제로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원의 가능성만 마련한 것이 된다.

- 이 견해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을 위해 똑같은 일을 하신 셈이 된다. 두 사람을 최종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 된다.

• 결국 그리스도의 속죄가 사람의 구원을 확실히 이루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받아들여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잠재적인 속죄가 된다.

실제적 속죄 교리는 믿음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값을 실제로 지불하셨다. 또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하는 은혜까지 확보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원의 가능성만 마련한 것이 아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확실히 성취한 실제적인 속죄이다.

◆ 의문 2. “전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곤 한다. 실제적 속죄 교리에 따르면 이러한 표현은 잘못된 것인가?”

⇒ 전도자는 상대방이 택함을 받았는지를 알아내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라고 명령하셨으며,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제시하고 믿도록 권할 수 있다.

다만 성경적 근거 없이 모든 개인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라고 단정하기보다,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과 약속을 분명히 전하는 편이 정확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 사함과 영생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전하면 그리스도의 속죄를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진실하게 제시할 수 있다. 전도자는 사람의 감정을

조종하여 결단을 끌어내려 하기보다, 죄와 심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회개와 믿음, 죄 사함과 영생의 약속을 충실하게 선포해야 한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복음을 듣는 사람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 의문 3.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면,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하는 전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실제적 속죄 교리는 전도의 필요성과 동기를 약화시키지 않는가?”

⇒ 실제적 속죄 교리는 전도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며 그것을 미리 알아내라는 명령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을 뿐 아니라, 복음 전도를 통해 그들을 부르시기로 정하셨다. 복음은 성령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방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전도를 불필요하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복음 전도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구속하신 백성은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반드시 믿음으로 부름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도자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거나 자기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복음을 정확히 설명하고, 죄인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권해야 한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와 불신앙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진다.

전도의 동기는 상대방의 선택 여부를 알아내는 데 있지 않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명령,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의 전도 동기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와 불신앙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진다. 누구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선택을 핑계로 불신앙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간절히 권하며 기도해야 한다.

■ 고전 1: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행 18:9-10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참고, 사 6:8-13 거룩한 씨)

행 13: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선교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 반대자들이 내세우는 성구

딤후 2:4, 6 『[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히 2:9 『...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고후 5:15, 19 [15]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요 1:29 『...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일 2:2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6:33,51 『[33]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 반대자들의 주장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견해는 ‘모든 사람’ 과 ‘세상’ 을 예외 없이 모든 개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속죄의 유익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 “하나님께서서는 속죄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려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이 속죄의 죽음은 각 개인이 받아들이는 때에만 효력을 나타낸다.” (밀러드 J. 에릭슨, 『기독교 신학』, 829쪽)

■ 바른 해석

이 구절들을 해석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여러 은혜를 베푸신다. 또한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죄에서 돌이켜 살라고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
-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 그리스도의 속죄는 구원의 가능성만 마련한 잠재적인 속죄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실제로 지불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확실히 이루셨다.

위의 성구들은 ‘모든 사람’과 ‘세상’을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각 표현의 범위는 해당 구절의 문맥을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디모데전서 2장 4-6절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부류의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문맥에 있다(딤후 2:1-2).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 히브리서 2장 9절의 ‘모든 사람’은 이어지는 문맥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이끄시는 ‘많은 아들들’과 거룩하게 된 형제들을 가리킨다(히 2:10-13).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죽음을 맛보셨다.

-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17절은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른다. 19절의 ‘세상’은 화목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된다는 넓은 범위를 보여 주지만, 모든 개인이 이미 하나님과 실제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 요한복음 1장 29절과 3장 16절, 6장 33절과 51절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세상을 향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나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 요한일서 2장 2절의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사도 요한의 가까운 수신자나 특정 민족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에 흩어진 자기 백성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다.

• 요한복음 17장 6절과 9절에서 예수님은 ‘세상’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구별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보존하신다.

요 17:6, 9 『[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9]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 반대자들이 내세우는 성구

히 10:29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벧후 2:1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 반대자들의 주장

히브리서 10장 29절은 언약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 그 피를 부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도 주께서 사신 사람이 주를 부인하고 멸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도 그 사람이 은혜를 거부하고 멸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바른 해석

두 본문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끝내 그분을 부인한 사람들을 경고한다. 이 말씀들을 단순한 풍자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들이 그리스도와 구원에 참여했던 참된 신자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히브리서 10장 29절의 ‘거룩하게 되었다’ 는 표현은 그 사람이 가시적인 언약 공동체 안에서 구별되고 언약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반드시 그가 거듭나고 죄 사함을 받아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이어지는 39절은 멸망으로 물러가는 사람들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한다.

•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자기들을 사신 주’ 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을 배반한 죄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값을 실제로 담당하셨다고 직접 말하지 않는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주의 백성으로 인정받았지만, 그들의 배교는 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두 본문은 교회에 속하고 언약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같지 않음을 보여 준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구속하신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믿음에 이르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보존하신다.

◆ 참고

‘모든’ 과 ‘세상’ 의 용례

-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요 1:9; 17:11
- 실제보다 넓게 표현한 일반적인 총칭: 요 12:19
- 세상의 소유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 체계: 눅 9:25; 요일 2:15
- 죄로 타락한 인류와 구원의 세계적인 범위: 요 3:16; 4:42
-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요 14:22
- 문맥상 택하신 모든 사람: 롬 8:32-33
-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롬 1:16; 3:22; 4:11; 10:14
-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에게 확장된 구원: 롬 11:15
- 특정 민족이나 지역을 넘어선 속죄의 범위: 요일 2:2

이러한 표현의 의미는 단어 하나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각 구절의 문맥과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속죄의 목적과 효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

결론 1. ☞ 그리스도의 속죄는 구원의 가능성만 열어 놓은 잠재적인 속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실제로 성취된 속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백성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요 5:24),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다(요 19:30).

■ 엡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 53:5, 10, 11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10〕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결론2. ☞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 가치와 충분성에서 무한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백성에게 확실히 적용된다. 인간의 선택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효력을 더하거나 그 효력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회개와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확실히 적용하신다.

♡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자.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자.

♡ 구원과 은혜의 어떤 부분을 자신의 공로나 선택의 결과로 돌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피자.

♡ 복음 전도는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선포한다(고후 5:20).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 흠어진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요 11:52). 이 귀한 특권을 기억하며 기쁨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 5:9-10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시 144:3

■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5. 유효적 부르심 (Effectual Calling)

▶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 구원으로 부르신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이 유효한 부르심은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한다. “God’s calling is a saving calling.” (존 맥아더)

■ 롬 8:28-30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살후 2:13-14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전 1: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전 1:23-24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골 3: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롬 1:6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근거⇒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에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복음의 외적 초청과, 성령께서 택하신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내적이고 유효한 부르심이 있다. 이 과에서 다루는 것은 후자인 유효적 부르심이다.

유효적 부르심은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택하신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역사이다. 성령께서는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그가 기꺼이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하신다.

이 부르심은 사람에게서 미리 발견된 반응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와 구원받는다.

◆ 의문 1. “유효적 부르심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복음의 초청을 받고도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복음의 외적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지만 거절될 수 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외적 초청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유효적 부르심은 단순히 복음을 듣거나 더 강한 권유를 받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택하신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이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의지를 억지로 꺾어 믿게 하지 않으신다. 죄로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사람이 기꺼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그러므로 외적 초청은 거절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유효적 부르심은 실패하지 않는다.

◆ 의문 2. “하나님의 유효적 부르심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인간의 의지와 책임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지를 강제로 꺾어 억지로 믿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믿게 하지 않으신다. 타락한 인간은 죄에 사로잡혀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죄인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의지로 기꺼이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의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에 속박된 의지를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선택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유효적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발적인 믿음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믿는 사람은 실제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자신의 응답에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그가 믿게 된 궁극적인 근원은 자신의 공로나 독립적인 의지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 시 110: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행 11:1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 반대자들이 내세우는 성구

겔 18:30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약 4:8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행 16: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마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22:14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 반대자들의 주장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령하며 구원으로 초청한다. 이 명령과 초청은 사람이 복음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초청받은 사람 가운데 이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보여 준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될 수 있으며, 복음에 응답하여 믿기로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주장이다.

■ 바른 해석

위의 성구들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와 믿음을 명령하며, 복음에 응답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타락한 인간에게 그 명령을

자기 힘으로 행할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복음의 외적 초청은 거절될 수 있다. 마태복음 22장 14절도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를 구별한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으며(롬 3:11; 고전 2:14),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셔야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다(행 16:14; 대하 30:6-12).

그러므로 사람은 실제로 회개하고 믿어야 하지만,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외적 초청은 거절될 수 있지만,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유효적 부르심은 반드시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한다.

■ 반대자들이 내세우는 성구

엡 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살전 5:19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행 7:51 『목이 끈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롬 10:21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 반대자들의 주장

위의 성구들은 사람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하며 거스를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스스로 믿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 은혜도 효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주장이다.

■ 바른 해석

위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다음 여섯 가지 사항을 확인해보자.

- ①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엡 2:8-9, 롬 12:3, 딤후 2:24-26, 행 11:18, 16:14).
- ②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분께 나아올 수 없다(요 6:44, 63-65).

- ③ 하나님의 유효적 부르심은 복음에 대한 저항을 이긴다(고전 1:22-24).
- ④ 거듭남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해준다(요일 5:1, 요 1:11-13, 요 3:3).
- ⑤ 새언약은 저항을 이기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다(신 30:6, 렘 31:31-33, 32:40, 겔 11:19-20, 겔 36:26-27).
- 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움직이신다(롬 9:14-23, 엡 1:11).

결론 1. ☞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을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유효하게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반드시 이룬다.

■ 벤전 5: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결론2. ☞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효하게 부르시는 근거는 인간의 지혜나 능력, 혈통이나 행위에 있지 않다. 이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

■ 고전 1:26-29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딤후 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calling)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벧후 1:3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앞으로 말미암음이라』

결론3. ☞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실 뿐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거룩함으로 부르신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신자는 자신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

■ 살전 2:12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벤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벤전 3:8-9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 우리를 구원으로 유효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자.

♡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1:18-19

■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맺음말

은혜의 교리를 삶으로 누리며

우리가 공부한 칼빈주의 5대 교리는 1618년부터 1619년까지 열린 도르트 총회에서 작성된 도르트 신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당시 개혁신교회는 구원에서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에 답하기 위해 성경의 가르침을 다섯 가지 교리로 정리했다. 그 핵심은 죄인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신앙고백은 오랜 박해를 견뎌 온 종교개혁 신앙의 유산 위에서 세워졌다. 많은 신자가 투옥과 추방을 당했고,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생명까지 잃었다. 도르트 신경과 함께 개혁신교회의 중요한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여진 벨직 신앙고백서의 작성자 귀도 드 브레도 1567년 신앙 때문에 순교했다.

신앙의 선조들이 고난을 감수하며 지키려 했던 것은 ‘칼빈주의’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성경의 진리였다. 우리도 이 교리를 사람의 주장이나 지적인 장식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진리를 확인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은혜의 교리를 바르게 배웠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와 자신을 바라보는 눈, 죄와 싸우는 삶,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복음을 전하는 열심이 달라져야 한다. 이제 우리가 배운 은혜를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자.

1. 자신을 낮추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거나 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며,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판단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날마다 회개하라.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을 높이지 말고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2. 구원의 확신과 기쁨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라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결심이나 변하기 쉬운 감정에 달려 있지 않다. 구원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성령의 능력에 기초한다. 우리의 소망은 믿음의 강함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

그러나 이 확신을 죄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믿음 안에 보존하실 뿐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라. 성령을 의지하여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약속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라.

3. 말씀과 기도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라

참된 신자의 삶에도 실패와 침체와 고난이 있다. 자신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게 느껴지거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넘어졌다면 그대로 머물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죄를 숨기지 말고 회개하며, 말씀과 기도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 은혜를 구하라. 형편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라.

4.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고 사랑으로 섬기라

우리가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교리를 많이 안다는 이유로 교만해지거나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은혜의 교리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긍휼을 받았는지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오래 참고 사랑해야 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고, 연약한 사람을 품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라. 은혜의 교리를 믿는 사람의 삶에는 겸손과 사랑과 인내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5.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전적 무능력과 하나님의 선택은 전도를 포기하게 하는 교리가 아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교리이다.

아무리 완고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지 않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반응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가족과 이웃과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36

◆ 부록 :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5대 교리 비교

전적 무능력 (Absolute Inability)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타락한 인간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체가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야 한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행 은혜를 주셔서 복음에 응답할 능력을 회복시키신다. 사람은 이 은혜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하나님께서서는 창세전에 사람의 행위나 장차 보이게 될 믿음을 조건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에 따라 구원할 사람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창세전에 누가 선행 은혜에 응답하여 그리스도를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그 믿음을 조건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셨다.

실제적 속죄 (Actual Atonement)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택하신 백성을 실제로 구속하기 위해 특별히 의도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으며, 회개와 믿음을 포함한 구원의 모든 은혜를 확보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셔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 그러나 그 속죄의 효력은 각 사람이 믿을 때에만 발휘된다.

유효적 부르심 (Effectual Calling)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해 택하신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가 기꺼이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이 유효적 부르심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사람은 이 은혜에 응답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응답할 때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성도의 보존 (Perseverance of the Saints)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를 끝까지 믿음 안에 보존하신다. 참된 신자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며, 결국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 멸망하지 않는다.	많은 알미니안주의 전통에서는 참된 신자도 은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믿음에서 떠나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알미니안주의 전통 안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 이 표는 존 파이퍼의 “TULIP” 세미나(2008년)를 참고하여 두 교리 체계의 일반적인 차이를 요약한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교단과 전통에 따라 선행 은혜와 성도의 견인 등에 관한 세부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시 148:13

